

“마을 출입 불가능해 1년 농사 망칠 듯”

진도군, 순복음교회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임회면 마을 전 주민 ‘외출자제’ 조치 내려져 김 양식·고추 수확 등 불안...독거 노인도 걱정

“코로나19 때문에 마을 출입이 불가능해 김 양식·고추 수확 등 1년 농사 망칠 것 같아 불안해요”

서울 순복음교회 확진자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진도 임회면의 한 마을에 18일 전 주민 ‘외출자제 조치’가 내려졌다.

김 양식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기에 2주간의 자가 격리로 일손을 놓게된 주민들은 “농사에 비유하면 벼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할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한 마을의 이장 A(72)씨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민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아 마을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늦게 6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진도1번·전남43번’으로 기록됐다.

60대 남성은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4시30분 경기 김포 70번 확진자(순복음교회)인 30대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60대 남성은 13일 진도로 돌아왔으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7일까지 5일간 주민들과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마을은 이날 오전부터 외출자제 조치가 내려졌고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오전부터 33가구, 주민 71명(외국인 노동자 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전 주민 외출자제 조치가 내려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한 마을 입구에서 18일 오전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명 포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됐다.

A이장은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만 통행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집에서 머물고 있다”며 “휴대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고추농사와 김 양식장이다”며 “이 시기에 수확을 하지 못하고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

지 못하면 1년 농사는 끝난 것이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A이장은 이와함께 홀로사는 노인들이 가장 걱정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마을에 70대부터 80대까지 홀로사는 노인 5가구가 있는데 폭염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틸지 걱정이 앞선다”며 “집 전화로 매일 오전·오후 확인 전화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캄보디아 국적 20대 구속

술을 마신 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캄보디아 국적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14분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 한 식당 앞에서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동료 B씨와 다툼을 벌였으며 차량에 싣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주 주차장서 3세 어린이 차량에 치여 숨져

전남 나주의 한 주차장에서 3세 어린이가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43분께 전남 나주시 송월동 한 주차장에서 A군이 차량에 깔렸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차량 앞에 서있던 A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서 시내버스 수십대 파손한 50대 구속영장

광주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차량 후사경 수십대를 파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시내버스 종점 차고지에서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10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시내버스 종점 차고지에 주차된 차량 30대, 양쪽 후사경 60개를 둔기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10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시내버스 종점 차고지에 주차된 차량 30대, 양쪽 후사경 60개를 둔기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손된 버스는 수리를 마친 뒤 곧바로 정상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버스회사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했으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내버스 수십대의 후사경이 파손돼 있다는 운전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보한 뒤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 해상서 레저보트 등 선박 음주운항 3건 적발

해경의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도 선박 종사자 및 수상레저 활동자의 음주운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6일 고흥 선적 여장관리선 등 3척의 음주운항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흥 선적 여장관리선 A(1.87t)호 선장 B씨는 지난 15일 오후 지인과 술을 마시고 16일 오전 6시 20분께 출항해 고흥군 준도 북방 0.1해리 해상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선박을 조종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 59분께 여수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 모터보트(수상레저기구)를 타고 낚시를 하던 C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0%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여수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3척 중 2척은 전날 술을 먹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광주 교인 21명...아직 확진자 없어

명단 내 27명 중 21명만 광주 거주...19명 ‘음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 넘게

발생한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광주 교인은 21명이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중 21명이 지역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통보됐던 지역 교인 27명 중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이관 통보했다.

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인 21명 정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 중 19명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1명은 ‘교회 또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설득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구해 연락이 끊긴 1명의 행방을 확인하는 대로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회 측이 제공한 명단에는 11세 아이도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아이는 가족 중 홀로 명단에 포함돼 있었으며, 최근 서울 방문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

김민정 기자

목포경찰,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기소의견 송치

행정기관 집합 금지명령 위반행위 엄중 사법처리

목포경찰서(서장 김영근)는 목포경찰서는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된 1명에 대해 이달 18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야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목포시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200여명이 운집하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집합제

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하여 자가격리위반 사례 후 첫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다.

앞으로 목포경찰은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계속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